

## ‘사업비 계상 실수’ 백운광장 지하차도 350억 더 든다

‘방재등급 3급→2급 상향’ 누락한 채 588억원 비용 확정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 상황 100% 순수 시비로 충당할 판  
총사업비 938억으로 ↑ 姜시장 격노...市 “내년 예산 반영”

588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백운광장 지하차도와 관련, 광주시가 30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광주시가 ‘방재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시설비 등을 누락한 채 사업비를 확정하면서 발생한 일로 이 같은 상황을 최근에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시는 일부 국비 반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비 확보 없이 순수 시비로 300억원을 충당해야 할 판이어서 사업비 예측 실패 등 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을 면키 힘들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 개량 공사인 ‘백운광장 지하차도’(백운광장-주월교차로 965m 구간, 최저점 13m) 공사에는 당초 588억원(국비 136억5천만원, 시비 45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현재 공정률은 57%로 광주시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곧바로 개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5년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와 지하공간, 교통량 등을 감안, 조선대에서 농성광장 방향 편도 2차로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지역구 국회의원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 한 방향 통행 시 운전자들이 생소할 환경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반대 방향 차량의 교통 체증 우려를 제기하며 양방향 지하차도 건설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1년 7월 20일 교통, 도로, 터널, 방재 분야 전문가, 광주경찰청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어 양방향 운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5일 왕복 2차로(편도 1차선)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2022년 1월 휴막이 가시실 및 북공판 설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10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보안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지하차도 준공이 1년도 남지 않은 최근 들어 공사비 30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점이다.

이는 2021년 양방향 운행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재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음에도 광주시는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추가 계상하지 않았다. 방재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면 기계실, 관리소, 환기팬 추가, 비상탈출 대피로, 폭우 대비 차단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고 양방향 운행에 따른 중앙분리대 등에 총 300억원 가량 소요된다.

결국 광주시는 국비를 제외하고 당초 시비 부담액 451억5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총 800억원이 넘는 시비를 공사비로 집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반 공사의 경우 공사비 증액이 반반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백운광장 지하차도의 경우와 같이 수백억원 증액은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시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실 행정에 의한 현재 추가 투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강기정 시장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강 시장이 2022년 취임과 동시에 해결을 약속한 ‘5+1’ 현안 중 하나다.

광주시의 경우 가뜩이나 SOC 예산이 부족해 작은 도로 개설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다른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사비 증액 변수가 생겼지만 사업비 부족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내년 6월 개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공사비를 책정할 때 시간에 쫓겨 방재 등급 상향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의 내용을 놓쳤던 것 같다”며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성강 기자



‘응급실 파행 현실로’ 의료진 부족에 응급실 병행 등 의료현장의 심각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력한 대책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실제로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3일 전 남대병원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 김애리 기자

##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도, 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와 협약... 500곳 추가 약정

전남도가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와 전남 사랑(愛) 서포터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한승주 전남도상인연합회장, 박정선 전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기현 한국외식업

중앙회 전남도지회장, 전남두 휴게음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민정기 대한속박업중앙회 전남본부지회장, 김태군 대한속박업중앙회 전남본부지회장, 이종훈 씨월드고속해리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7개 단체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할인가맹점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 협력,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할인가맹점 500개소 추가 가입 약정을 하고 서포터즈에게 부여되는 실질적 혜택 확대를 통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명 조기 달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현재 200여개소인 할인가맹점을 연말까지 1천개소, 2026년 6월까지 3천개소로 확대하고 서포터즈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추가 발굴해 서포터즈 가입자의 전남 방문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체육회, 대한산악연맹, 향우 중견기업 등 여러 단체·기관과 서포터즈 가입 업무협약을 해 올해 말까지 70만명을 모집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가입에 동참해준 협회장,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할인가맹점 홍보와 혜택 지원 발굴을 통해 서포터즈 100만명 달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양시원 기자

## 내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수 기자

Today	무진대로 ‘암흑길’ 5개월째 방치 6면
	‘Art뱅크’ 예술을 선물합니다 14면
	26년만에 타이거즈 구원왕 나오나 16면

국가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전남대학교**

| 수시 입학원서 접수 | 2024. 9. 9.(월) 09:00 ~ 9. 13.(금) 18:00

| 수시 합격자 발표 | 2024. 12. 13.(금) 15:00

※ 전남대 입학과 안내전화 062-530-4731~4735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